

마음에 새기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 진짜 이유
(사사기 & 신명기 6장)

가장 빼아픈 망각



집에 가면 숙제 꼭 해야지!
(게임기를 보는 순간 잊어버림)

장난감 정리할게요!
(5분 뒤 그대로 방치됨)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림.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빼아픈 망각은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끊어진 믿음의 세대



가르침의 부재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앎)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사사기 2장 10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일어나는 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

거짓말과
우상 숭배

말씀과 선악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사기의 굴레: 반복되는 망각의 늪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적에게서 구해 주심



연필로 쓰지 말고, 돌에 새기라



인간의 기억

(연필 글씨처럼 쉽게 지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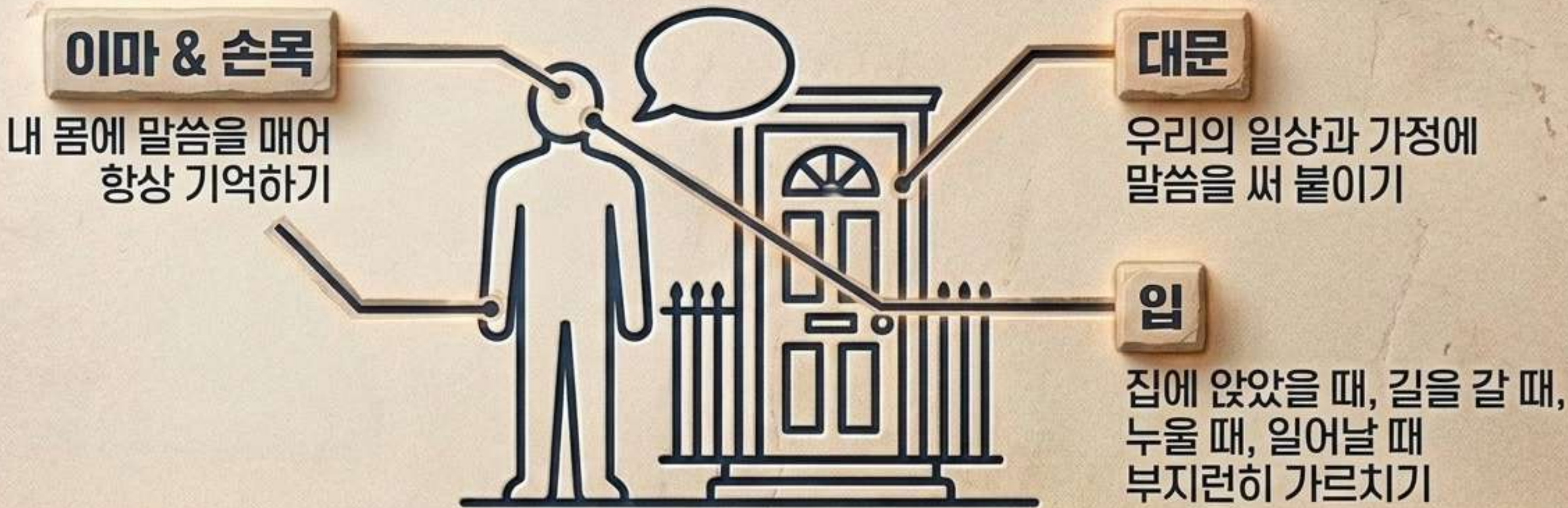
하나님의 명령

(돌에 새긴 글자처럼 깊이 기록함)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6)

들으라!

온몸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는 신앙



한 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학교를 할까요?

재미있는 게임, 맛있는 간식, 신나는 찬양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게임과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필 '사사기'를 배울까요?



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됨을
배웁니다.



한계

사람의 힘만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필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참된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불완전한 사사 vs 완전하신 참된 왕

인간 사사
(에훗, 기드온, 삼손 등)

왕이 없는 시대의
불완전한 인간

잠간의 평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망각함)

눈앞의
육신적인 적을 물리침

정체성

구원의 기간

다루는 문제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시는 참된 왕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구원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어
'죄와 망각'의 근본 문제를 고치심

성경학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교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백성처럼 매일 결심하고도 또 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학교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의 세 가지 마음

예수님의 구원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결단합니다:



1. 귀
(듣는 마음)

“잘 듣겠습니다!”

(장난치지 않고 선생님과
말씀에 귀 기울이기)



2. 머리
(기억하는 마음)

“잘 기억하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배운 것을
부모님과 나누기)



3. 가슴과 손
(순종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에서 행동하기)

우리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사사기 2장의 아이들

-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
-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이들
-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이들
-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아이들
-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평생의 마음에 예수님을 새기는 시간

자라서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